

##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

2014년 라디오 강론(요한계시록)

### 79.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

2014. 07. 06.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금년도 절반이 지났습니다. 이 방송을 꾸준히 들으시는 애청자들에게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14장 공부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계15장 공부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올바르게 인도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입니다.

[계15:1~4]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되 2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 가에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3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4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1. 목사님, 지금이 7월인데요, 우리가 2013년 1월부터 1년 반을 부지런히 달려왔네요. 그동안 계시록 14장까지 끝마쳤습니다. 이제 계시록 후반부를 살펴볼 차례인데요, 잠깐 전반부를 간단히 정리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답: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합시다. 우선 계시록은 하나님의 복음을 이스라엘 민족 유대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맡긴 것을 1장에서 2장 3장에 보여줍니다. 이것은 다니엘서가 이스라엘 민족과 그 나라를 통하여 복음을 세상에 전하게 되었을 때 세계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계시해준 것과 다른 것입니다. 그때는 다니엘서 2장에 우상의 형상으로 보여준 장면이 다니엘서 전체의 프레임이었고 전체 내용이 2장의 프레임 밖으로 나가지 않는 범위로 계시를 주셨지요. 그런데 유대민족이 구주 예수를 거절할 때부터 복음은 예수께서 설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교회의 이름을 상징으로 하여 교회의 역사적 진행을 계시록 전체 내용의 프레임을 보여주시고 일곱 인, 일곱 나팔, 그리고 짐승들로 표상된 계시를 보여주셔서 이 계시가 거의 동일한 역사적 시대에 각각 다른 사실들을 입체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일곱 교회 계시가 교회 내부의 역사적 진행에 대한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일곱 인은 교회가 역사적으로 진행하면서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교회의 역사적 진행과 거의 같은 시대에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나팔은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각 시대마다 극심하게 방해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보여주시고, 짐승들로 상징된 계시는 세상에 이런 일이 진행되게 된 근원부터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결국 12~14장까지는 역사적으로 진행되면서 세상과의 관계로 하

여 많이 변질된 교회를 향하여 회개하고 성경이 계시하는 그대로의 구원의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기별과 그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세력의 대결을 보여줍니다. 결국 하나님의 복음을 끝까지 방해하는 세력은 심판으로 멸망하게 될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14장까지가 진행되는 역사에 대한 마지막 계시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공부한 대로 14:14~20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결과와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의 결과를 압축적으로 보여주시고, 이제 15장부터 20장까지는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상태를 아주 자세하게 계시해주는 내용이고, 21,22장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결과를 자세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14장에는 곡식을 거두었다는 말 뿐이었잖아요. 거두어진 곡식을 상징된 성도들이 어떤 상태에 있게 되는지를 자세히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16장부터 20장까지는 포도주 틀에 던져진 악인들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2. 목사님, 긴 이야기를 간단히 말씀해주셨는데, 그래도 한참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15장의 내용도 요약해서 말씀해주셨네요. 그러면 이제 15장을 자세히 살피도록 해야 하겠지요.

답: 먼저 다시 15장을 한 구절씩 읽으면서 이야기를 해야 하겠지요. 1절을 봅시다.

[계15:1]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하다.

요한에게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하늘에 나타나도록 보여줍니다. 계시록에 이적이라는 단어가 세 번 나오는데 12장 1,3절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때 이적이라는 말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 말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입니다. 이 말은 요한복음에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을 표현하는 말로 사용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표적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을 표현할 때 공관복음에서는 주로 권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두나미스”인데, 엄청난 힘을 뜻하는 말입니다. 영어 다이내마이트가 이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세메이온을 썼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이적이 그분이 메시아라는 표가 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12장 1절에 해를 옷 입은 여자에 대한 이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늘에서 보이는 이적 세메이온이라고 했고, 3절에 붉은 용에 대한 것을 보여주시면서 또 세메이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15:1에 세메이온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런 광경을 보여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표가 된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말을 처음부터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런 사실을 보여주실 수 없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표적의 내용이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진 장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는 마지막 재앙이라고 선언합니다.

3. 그러면 이 재앙은 엄청난 화가 되겠습니다. 사실 8장에 독수리가 공중에 날면서 화 화 화 이렇게 선언했지요?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가 남았기 때문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화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는 세상 나라가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한다는 선언으로 끝났거든요. 이것은 무슨 화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마지막 재앙이라고 했으니 이것이 엄청난 화가 되겠는데요?

답: 목사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계10장에도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날 사건을 말합니다.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11장에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는 것이 바로 세상 나라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전에 그 나라에서 거두어낼 것을 거두어내어야 합니다. 가라지이지요. 이것을 거두어내는 장면이 바로 일곱 재앙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화 화 화라고 선언한 화 중에 마지막 화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날 것이고 세상 나라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세세토록 왕 노릇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2절부터는 4절에서 이런 사실을 먼저 보여줍니다.

4. 예, 그렇군요. 그래야 화에 대한 말이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첫 화나 둘째 화가 점점 커지는 것 같았는데, 셋째 화는 화가 아니라 복을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마친다는 뜻이 좀 더 분명히 이해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답: 그렇습니까? 마지막 화가 15장에서 일곱 재앙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았을 때 화, 화, 화라는 선언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이해되었다는 것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노의 포도주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 재앙으로 그런 일을 한 모든 세력과 존재들에 대한 심판이 완전히 끝난다는 뜻이지요. 그러나 최종적인 것은 20장에서 끝이 납니다. 악과 악의 장본인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둘째 사망에서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일곱 재앙이 내릴 때는 불의로 진리를 막을 수 있는 기회나 대상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 대한 재앙으로는 마지막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5. 그렇군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에 나타난 승리의 보증을 먼저 하시고 진행될 사건을 말씀하시는 그 패턴을 여기서도 여전히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답: 예, 그렇습니다. 16장에 일곱 재앙이 내리기 전에 성도들의 승리와 안전을 보장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2~4절의 장면입니다. 한 번 읽어보시지요.

[계15:2~4]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3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4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감사합니다. 먼저 보이는 장면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입니다. 유리바다는 4장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다고 했고, 또 “유리바다 가에 서서”라고 해서, 유리바다 같은 것과 유리바다가 겹쳐서 나타나는데 특별히 다른 뜻은 없는 것 같고, 요한이 볼 때 유리바다 같은 것이 바로 유리바다라는 것을 뒤에 확인하는 기록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유리바다는 4:6

의 유리바다에 비하여 좀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4:6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고만 말했는데 여기에는 불이 섞였다고 했습니다. 또 4장에는 유리바다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고 했는데, 여기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불이 섞였다고 하는 데는 주석가들 사이에 두 가지 해석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유리 바다의 장엄함과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한 표현으로 눈부신 순결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진노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두 설명은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이 섞인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잘 모르지만 4장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지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양의 노래를 부른다고 3절에 말한 것에 미루어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홍해를 연상케 합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넌 후에 찬양의 시를 지었고 불렀지요. 홍해는 글자대로는 붉은 바다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망의 바다를 무사히 건너는 것을 상징합니다. 것처럼 유리바다 가에 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반사하는 바다가 불이 섞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6. 아, 그런 이해가 아주 확실한 이해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양의 노래를 부르는군요. 그런데 정확하게 모세의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홍해를 건너서 부른 그 노래가 확실합니까? 또 어린양의 노래는 어떤 내용입니까?

답: 모세의 노래는 우리교회에서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가 부른 출15:1~18의 내용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학자들 사이에서는 두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의 노래와 어린양의 노래가 다른 종류의 노래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을 배경으로 하여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한 것이며 어린양의 노래는 짐승의 핍박과 위협으로부터 구원된 자들의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짐작하시겠지만 한 종류의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의 노래가 모세의 출애굽의 구원으로 부터 시작해서 어린양의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이나 또는 모세의 출애굽의 구원이 어린양의 구원을 예표하는 모형이라고 해석하여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하나의 찬양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견해는 다 일리가 있습니다. 또 모세의 노래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신 32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학자는 홍해에서 수장을 통해 애굽 사람들의 추격을 퇴치하고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구속을 찬양한 출 15:1~18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의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가 출 15장과 신 32장을 반영한다 할지라도 그 내용은 구약성경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속을 찬양한 것으로 유대인 회당과 초대 교회에서 불리어진 것이었다고 어떤 학자는 말합니다. 이러한 찬양은 하나님께서 영원하며 완전한 주권을 소유하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모든 자들을 진노로 심판하셔서 멸망시키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신실하심을 나타내신 것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다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한 마디로 이 노래는 구속의 노래이며 구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모세의 노래와 어린양의 노래를 부른다고 하고 가사는 하나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계15:3,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4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기록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가사를 보면 이 내용 자체가 모세의 노래와 어린양의 노래인 것 같습니다. 모세의 노래나 어린양의 노래가 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의롭고,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고 전능하시며 의롭고 참되시고 기록하신 분이라는 내용이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록하심과 의로우심을 만국에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결과로 만국이 아서 주께 경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구원의 노래이며 창조주요 구원의 주이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가사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가사에 의하여 이것을 출15:1~18의 내용은 모세의 노래이고 여기 기록된 내용은 어린양의 노래라고 구분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업을 찬양하는 노래를 모세의 노래, 또 어린양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라고 보면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7. 목사님 말씀이 좋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설명이라서 굳이 구별하여 이것을 모세의 노래이고 저것은 어린양의 노래라고 할 절대적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답: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은 내용의 노래를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라고 부르는 것을 생각하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무슨 말씀입니까?)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인데 한 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요5:39]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경은 구약성경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성경은 아직 기록되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눅24:25~27]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26 그리스도께서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27절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했는데, 구약성경에 쓴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것이고 그 내용 중에 예수께서 고난 받고 부활하여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는 내용이 있다고 하셨지요. 같은 내용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눅24:44~48]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46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께서 고

난을 받고 제 삼 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47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48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나 어린양의 노래가 같은 내용이라는 것은 확실하지 않느나 생각합니다.

8. 예, 목사님.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것이 나타났습니까? 나타난 의로운 일이 무엇을 뜻하지요?

답: 아주 핵심적인 사실을 질문하셨네요. 나타난 주의 의로운 일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중요하지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와서 주께 경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국이 와서 경배한다고 했으니 나타난 주님의 의를 모른 나라와 국민이 없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하지요?(예) 성경이 계시하는 “주님의 의” 곧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아는 것을 구원의 실상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롬3:21,22을 읽어봅시다.

[롬3:21,22]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들은 율법의 의를 강조했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던 초기에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교회에 들어온 유대인들이 율법의 의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큰 논쟁을 일으키고 그 일로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의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잘 설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도덕적 의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도덕의 표준이지 않습니다. 그 계명을 한 획도 틀리지 않고 다 지킨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율법의 의나 도덕적 의는 의미상으로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여기서 말한 의는 만국이 다 알게 되는 의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만국이 다 안다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마도 어떤 분들은 양심이라고 주장할는지 모릅니다. 양심은 많은 경우 문화와 풍속에 의하여 형성됩니다. 문화와 전통과 풍속이 동일하면 그 문화를 생활하는 것은 전혀 양심의 부담을 가지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엄밀하게 살피면 죄가 되는 일일지라도, 그들이 속한 문화 속에서 성장하고 생활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결코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긴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주의 의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나누어야 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만국이 와서 경배하도록 나타난 주의 의는 율법이나 도덕이나 양심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바울이 잘 설명했습니다. 로마4:23~25을 읽을까요?

[롬4:23~25]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25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

나라.

감사합니다. 사실은 17절부터 읽으면 더 확실하지만 이 세 구절만 읽어도 내용은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읽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 번 읽으면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의로 여긴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도 위한 것인데, 곧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분을 믿는 것을 의로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증거로 제시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행17:31을 읽어봅시다.

[행17:31]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곧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나타난 주님의 의입니다. 이것을 만국이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나 악인이나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은 의롭다고 경배합니다. 빌2:8~11을 읽어봅시다.

[빌2:8~11]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분명하지요, 하늘, 땅,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께 꿇게 합니다. 만국이 와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간을 구원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것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언제 그렇게 될 것인가는 계속 공부하는 중에 이야기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경배하는 자리에 꼭 서야 할 것입니다.

9.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하겠습니다.

기도: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계시록 15장의 말씀을 연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를 부르는 무리 중에 있도록 복을 주시고 믿음으로 의롭다는 선언을 듣고 주님께 경배하는 사람들 중에서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